Fixed Income

2월 금통위: "금리 스프레드 과도"

- 2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50% 동결. 6회 연속 현 수준 유지
- 6개월 점도표 동결 전망 우세. "인상 우려까지 반영한 금리 동향은 과도"
- 26년 성장률 전망 2.0%로 상향에도 GDP 갭은 여전히 마이너스(-)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2026년 2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50%로 동결

2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2.50%로 동결했다. 이로써 금통위는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금리 동결의 또 다른 배경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국채 금리 스프레드 과도"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너무 앞서 반영"

2월 금통위를 앞두고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예상이 주류를 이뤘다. 이미 지난 1월 금통위를 통해 인하 사이클의 종료 선언이 나왔다는 점에서 다음 회의에는 자연스럽게 기준금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강했던 것이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예상에서는 별다른 논란이나 이견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지난 수개월간 가파르게 높아진 시장금리 수준에 대한 통화당국의 진단이나 평가를 크게 주목했다. 특히나 기준금리 인하 종료 이후 인상까지는 적잖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매우 확대된데 따른 통화당국의 상황 판단과 대응 방안 등이 나올 수 있는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채권시장 상황에 대한 금통위원들 간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통화당국의 전망이나 의견에 비춰볼 때 과도한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 언급하는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할 정도로 시장금리가 상승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금리 동향이 지속될 경우에 대해서는 통화당국이 직접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이번 점도표 가이던스 변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과 같은 요인들이 시장금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본 가운데 한은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사는 통화당국 차원에서 시장금리 수준이나 기준금리와의 스프레드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 자체가 일종의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일환이라고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대응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는 점에서 지난 수개월 간 과도한 변동성 분출 및 상승 과정을 거친 시장금리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견해다.

특히 일종의 '레짐 체인지'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급속하게 악화됐던 상황을 거친 후에 해당 발언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상 우려까지 앞당겨 반영했던 불안감을 크게 진정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경기에 대한 진단 역시 시장금리 안정화에 대한 의지와 맥을 같이 했다.

이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2.0%로 상향했지만 GDP 갭이 올해까지 마이너스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현 전망 경로가 유지된다면 내년에나 소폭 플러스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율 상승은 펀더멘털 아닌 수급 여건에 기인, 이전보다 진정"

금리에 대한 발언과 함께 환율에 대한 통화당국의 언급이나 진단 역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연말 경부터 극심했던 달러원환율의 급등 문제에 대해 국내 수급 요인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컸으며 현재는 이전 대비 진정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우려 등과는 무관한 환율 움직임이었던 만큼 일방적인 달러 쏠림 현상이나 해외투자 집중 현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왔는데, 이번 금통위 기자회견에서도 해당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또한 과도한 환율 움직임 자체가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금융안정을 동시에 훼손할 수 이슈로 평가함에 따라 환율 및 외환시장 여건에 대한 통화당국의 대응 의지를 시사했다.

동결이 압도적인 6개월 점도표, 변경된다면 인상 보다 우세한 인하 전망

한편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6개월 점도표는 시장금리의 변동성 확대 및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시장의 착시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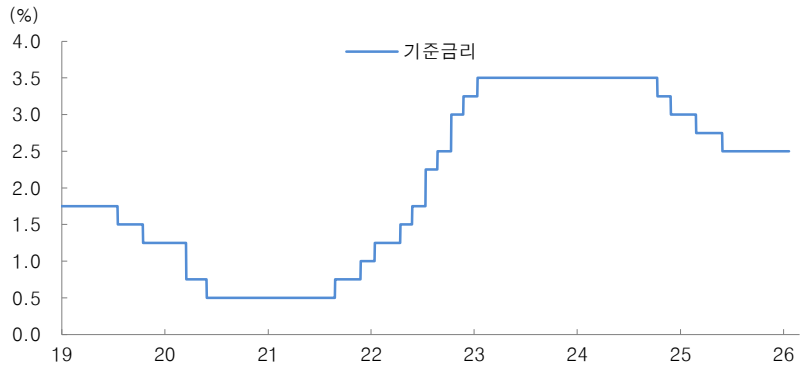
7명의 위원들이 각각 3개의 점으로 자신들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에 대한 표시하는 과정에서 총 16개의 점이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한 반면 인상은 1개에 불과했다. 반면 4개의 점은 인하 가능성을 전망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가 인하 사이클이 막 종료됐을 뿐 곧바로 인상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당사는 새롭게 발표된 이번 점도표 역시 앞서 언급한 이창용 총재의 금리 스프레드 수준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시장금리의 하향 안정과 가파른 상승 및 변동성 분출을 진정시켜줄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한다.

보통 기준금리 사이클의 전환이나 변화 과정에서 시장금리는 종전 기준금리 변화와는 상이한 움직임을 겪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본격화됐던 시장금리 상승은 정책 전환에 대한 반영 기간 자체가 매우 길었을 뿐만 아니라 금리의 상승 조정 폭 역시 매우 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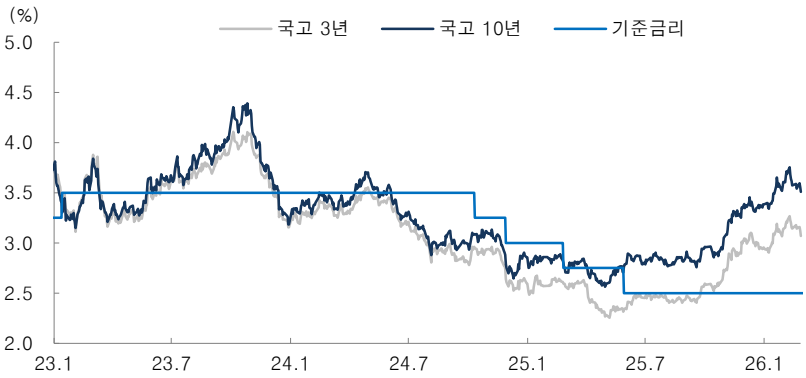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금통위를 기점으로 단기적인 금리 고점 영역 확인과 이후 적정 스프레드 탐색 과정을 예상한다. 1개월 전후 시각에서 국고 10년 금리의 타겟을 3.35%로 제시한다.

그림 1. 한국 기준금리: 2월 금통위에서 2.50%로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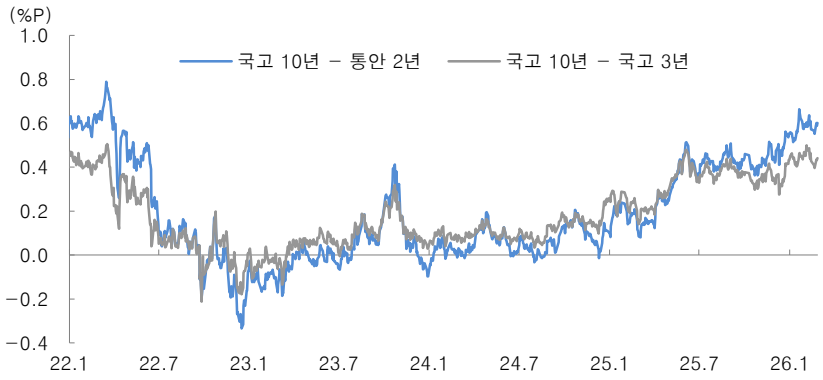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한국 주요 만기별 국고채 금리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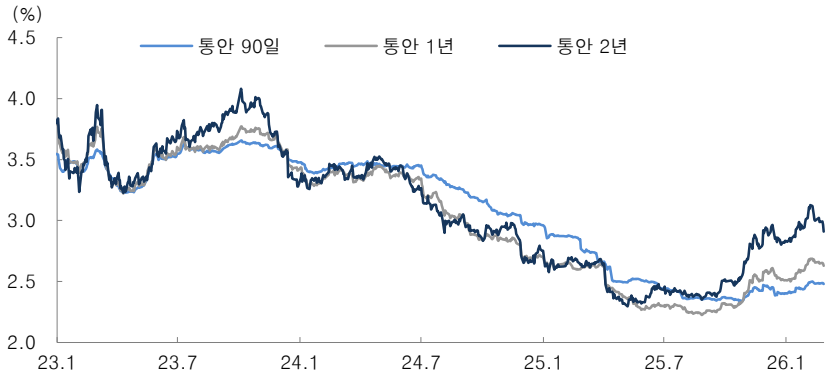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한국 주요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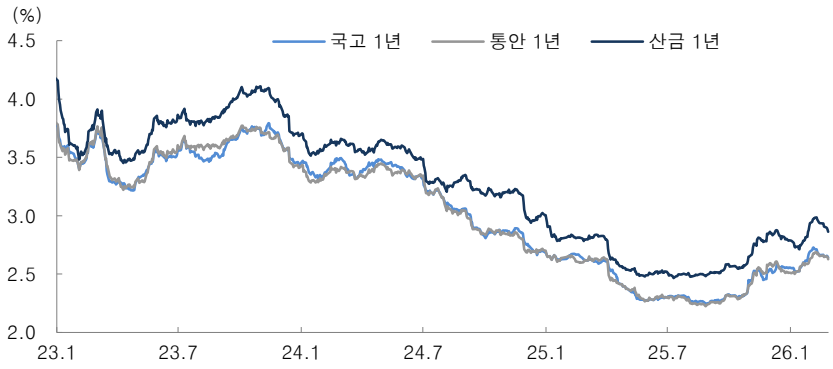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한국 만기별 통안증권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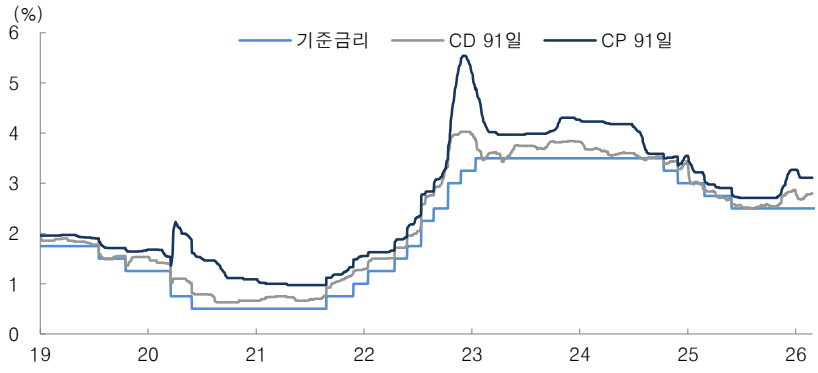
자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한국 1년 만기 주요 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6. 한국 기준금리와 주요 단기금리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2026년 2월 금통위 통화정책 방향 전문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 근처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은 예상보다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투자 확대,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인 위험회피심리가 다소 강화되었다. 장기 국채금리가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미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에 영향받으며 상승하다가 하락하였으며, 미 달러화는 엔화 강세,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판결 등으로 약세를 나타냈다. 주가는 기업실적 개선을 반영하여 대체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으나 AI 과잉투자 및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통상환경 변화, AI 투자 및 지정학적 위험의 전개 상황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과 수출 호조에 힘입어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고용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겠으나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세도 반도체 경기 호조 및 양호한 세계경제 성장세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1.8%)를 상회하는 2.0%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반도체 경기 및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통화·재정정책 및 미 관세정책, 지정학적 위험 등과 관련한 상·하방 리스크가 잠재해 있다.

□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및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1월 중 2.0%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2.0%를 나타내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2.6%로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다. 금년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전자기기 등 일부 품목의 비용상승 압력으로 지난해 11월 전망치(각각 2.1%, 2.0%)를 소폭 상회하는 2.2% 및 2.1%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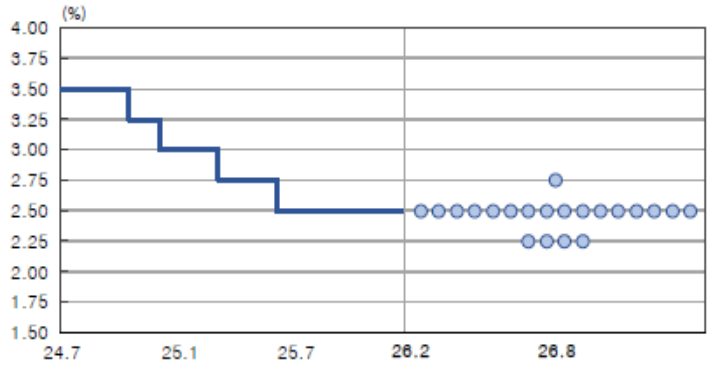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외국인 주식매도 등 수급부담과 엔화 등 주변국 통화 움직임에 영향받으며 등락하다가 최근 상당폭 하락하였다. 주가는 주요 업종 실적호조 전망, 자본시장 제도개선 기대 등에 힘입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 글로벌 증시 움직임에 영향받아 변동성은 확대되었다. 국고채금리는 금리인하 기대 약화, 머니무브 등에 따른 수급부담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 지속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수도권 주택가격은 정부 대책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되었지만,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소폭 높아지겠지만 목표수준 근처에서의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성장은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환율 변동성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세 회복을 지원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 금번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 7명 모두 찬성하였다.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금통위원의 6개월 후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26.2월)



자료: 한국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